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프로그램 공간계획*

-시설의 프로그램 별 공간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이 민 아*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및실내계획 전공, 조교수)

본 연구에서는 전국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각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공간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입소노인 개개인의 건강과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활동참여와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공간을 계획하기위한 기초정보 마련을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전국 시설의 전반적인 현황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기위해 2004년 7월 현재 전국 노인전문요양시설(무료)로 등록되어 있는 78개소를 대상으로 2004년 9월 중 우편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시설과 입소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 주로 시설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현황과 사용공간에 관한 것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편 발송 일주일 후 전화를 이용하여 설문지 접수확인 및 협조요청을 하였고, 그로부터 2주 정도 후에 답변을 독촉하는 엽서를 발송하였다. 설문지 총 78부 중 58부(74.4%)가 회수되었고, 이 중 답변이 부실한 2부를 제외한 56부(71.8%)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프로그램별로 면적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인식된 프로그램은 레크레이션(80.0%)과 운동(70.9%), 사회적응(62.3%)으로 활동량이 많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고, 조명은 미술(68.5%), 음악(61.5%), 인지(60.4%) 등, 작업치료관련 프로그램에서 중요도가 높았으며, 전문 프로그램실이 요구되는 것은 인지(61.1%), 미술(56.6%) 등의 작업치료 프로그램과 요리(54.1%), 원예(47.7%) 등의 전문설비가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다. 사용공간을 조사한 결과, 운동이나 레크리에이션 및 사회적응 등의 활동이 요구되는 프로그램과 미술, 음악, 종교 프로그램의 경우, 넓은 면적을 가지면서 동시에 각종 음향설비와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 휴게실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반면, 인지, 미술 등과 같이 소그룹으로 각종 도구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전문 프로그램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지프로그램의 경우 거주실에서 그대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거주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중, 음악은 방음설비를, 미술의 경우 참여노인을 위한 테이블과 같은 가구를 개선사항으로 주로 지적하였다. 다른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진 휴게실에서 운동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여전히 그 면적이 문제가 되어 입소노인을 동시에 한 장소에 모이도록 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거주실에서 가구가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던 미술프로그램은 휴게실에서 전문 프로그램실이 요구되었다.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03-C00235)